

Living Voice

IBX-RW3

이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
있노라면 음악의 파도 속
에 서핑 보드를 타는 느낌
이 감돈다. 특이한 체험이
다. 처음에는 앰프가 강력
한 5극 진공관 앰프였기
때문에 그 파워감 때문인
줄만 알았다. 그러나 출력
이 일반적인 반도체 앰프
에서도 그런 극적인 효과
는 동일하다. 마치 음악이
만조의 바다처럼 밀려오
고, 오랜 장마철 댐의 물처
럼 금방이라도 넘쳐날 것
같은 데에서 경이로움을
느꼈다.

글 김남



음악이 만조의 바다처럼 밀려오는 경이로움

특이한 제품이다. 설명 없이 겉으로만 보면 평범해 보이면서 마치 프로악의 신 기종인가 하는 느낌도 받겠지만, 시청기는 지금 한참 세계 각국의 전문 지마다 팔목할 만한 제품으로 선정되었고, 제품 소개와 리뷰가 여기저기 넘쳐난다. 보통의 플로어스탠딩 스피커는 아닌 것이다. 가격도 만만치가 않다.

이 스피커를 만든 제작사에 대해 특별한 자료가 없지만, 영국 더비셔에 공장이 있고 처음부터 용도가 명확한 전문 기종을 만들기 위해 출범했다고 한다. 또한 이 제작사는 이미 약 30만 파운드짜리 기묘한 혼 타입 스피커를 내놓아 시선을 모은 바가 있다. 보통의 제품은 만들지 않는다는 예고편이었던 셈이다.

동사의 플로어스탠딩 스피커 중 대표적인 모델이 IBX와 OBX 제품이다. IBX와 OBX는 생김새는 같지만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. IBX는 네트워크 박스가 내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스타일이고, OBX는 네트워크 박스가 외장이다. 즉, OBX가 좀더 차별화된 기종인 셈이다. 이 네트워크 박스는 무게가 5kg이나 되는 육중한 것이다.

이 IBX와 OBX 스피커가 속해 있는 시리즈에는 이색적인 이름이 붙어 있다. 관객석이라는 뜻의 '오디토리움'이 그것이다. 상호와 이들 단어를 조합해 보면 '관객석의 살아 있는 음성'이라는 말이 된다. 보통 스피커는 하



이엔드라고 할지라도 공연장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. 거실용이라고도 안 쓴다. 그보다는 오히려 작은 룸에서 잘 울리는 홈 스피커라는 쪽이 더 많다. 그런데 이 메이커는 처음부터 거실에 잘 어울리는 스피커를 개발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. 모든 스피커들이 너무 홈용이라는 타이틀에 얽매어 왜소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개발의 초점. 회사의 설립자이자 디자이너인 케빈 스코트는 그 점에서 당시 스피커들의 품질에 실망을 하던 터였다. 그래서 성능이 좋으면서도 음향의 규모를 크게 하고 보통의 소출력 앰프로도 얼마든지 다이내믹한 음악을 재생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개발에 성공했다고.

모든 오디오 사용자들은 사실 그 점을 가장 부러워한다. 음악의 샤워라는 표현이 있지만 온몸을 휘어 감는 웅장한 사운드가 내 방에서는 울릴 수 없단 말인가? 그리고 볼륨을 줄이면 라디오인지 오디오 세트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 사실상 현재 오디오의 상태이고, 핀포인트 운운해 가면서 극도로 왜소한 것이 지금의 제품들이기도 한 터이다. 그렇다고 해서 대문짝만한 알턱을 방 안으로 끄집고 들어올 수는 없는 일. 요행으로 들어와도 결국 알턱은 전공이 야외용이기 때문에 방안에서 길들인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렵다.





수입원 소노리스 (02)581-3094

가격 1,590만원 인클로저 베이스 리플렉스형 사용유닛 우퍼(2) 17cm, 트위터 스캔스픽 재생주파수대역 35Hz-30kHz 임피던스 6Ω 출력음압레벨 94dB 파워 핸들링 100W 크기(WHD) 21.5×103×27cm, 21.5×14×27cm(플린스) 무게 21kg

만약 피아노든, 현 독주든, 보컬이든, 어떤 장르라도 최고의 퀄리티로 소화해 내는 슬림한 플로어스탠딩 스피커 제품이 있다면?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났다는 느낌이다. 완벽하지는 않을망정 이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싶노라면 음악의 파도 속에 서핑 보드를 타는 느낌이 감돈다. 특이한 체험이다. 처음에는 앰프가 강력한 5극 진공관 앰프였기 때문에 그 파워감 때문인 줄만 알았다. 그러나 출력이 일반적인 반도체 앰프에서도 그런 극적인 효과는 동일하다. 마치 음악이 만조의 바다처럼 밀려오고, 오랜 장마철 댐의 물처럼 금방이라도 넘쳐날 것 같은 데에서 경이로움을 느꼈다. 대체 어떻게 이 작은 체구에서 그런 웅장한 소리들이 만들어진단 말인가.

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자상하지가 않다. 비밀의 핵심은 네트워크 쪽에 있는지 모르겠다. 체구나 유닛 등은 그냥 평범해 보이기 때문이다. 이 스피커는 놀랍게도 혼이나 플레인지가 아닌데도 감도가 94dB이나 된다. 임피던스는 6Ω. 트위터는 유닛계의 명가로 알려져 있는 스캔스픽에 특주된 제품이다. 17cm 미드-우

퍼 역시 스캔스픽 제품이며 특주품으로, 특수 처리한 페이퍼 재질의 콘에 강력한 마그넷을 장착한 것이다. 그리고 네트워크에는 고가의 호블랜드 필름 및 포일 뮤지캡, 자사에서 직접 제조한 에어 코어 인덕터 등을 사용하는 등 부품 선별 역시 남다르다. 당연히 단자는 WBT 제품이다. 인클로저 역시 MDF에 비닐 시트를 붙인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가구 등급의 북 매치한 무늬목으로 정성스럽게 마감했다. 또한 내부에는 단단히 3중 버팀대를 부착해 진동에 대비하고 있다.

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된 소리는 우선 어딘지 모르게 고급스럽다는 것이 첫 번째 감촉이다. 음축이 부드러우면서도 정말 깨끗하다. 비발디 사계 중 봄 3악장에서 이런 시원스러운 맛을 들어 보기는 처음이다. 맑은 혼풍이 아니라 5월의 밤바람처럼 단숨에 마음이 열린다. 모든 스피커에서 조금씩 남아 있기 마련인 아쉬움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그 이유는 아직도 미스터리다. 이제 더 이상 대형기는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닐까? **(A)**

